

취학 전 자녀를 둔 어머니의 세대 간 양가감정에 관한 질적연구*

A Qualitative Study on Intergenerational Ambivalence of Mothers with Preschool Children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박사과정수료 김 인 지
박사과정수료 이 세 인
교 수 이 숙 현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Dissertator : Kim, In Jee

Dissertator : Lee, Se In

Professor : Lee, Sook hyun

◀ 목 차 ▶

- | | |
|---------------|---------|
| I. 서론 | IV. 논의점 |
| II. 연구방법 및 절차 | 참고문헌 |
| III. 연구결과 |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qualitative research is to explore the intergenerational ambivalence of mothers with preschoolers. Twenty full-time mothers and 19 working mothers were interviewed in depth. Most of the participants who received instrumental support from their mothers showed ambivalence, and especially the working mothers were more likely to feel ambivalence than the full-time mothers. However, participants who received little or no support from their mothers did not report any ambivalent feelings. Their ambivalent feelings came from both their social structure and intrapersonal contradictions. In order to avoid ambivalent feelings, some participants redefined receiving support from their mothers as a positive thing. Meanwhile, the participants who received active support tried to divert their ambivalence by providing child care support for their children, and they showed a 'repayment provision' tendency. Some working mothers and most of the full-time mothers said they would allot 'limited provision' by excluding child care support for their children. Those who were aware of this ambivalence issue sought 'reasonable provision' for their children. Depending on these results, several suggestions are presented to solve the ambivalence.

주제어(Key Words) : 세대간 양가감정(intergenerational ambivalence), 취업모(working mothers), 전업모(full-time mothers)

Corresponding Author : Kim, In Jee, Department of Child and Family Studies, Yonsei University, 134 Shinchon-Dong, Seodaemun-Gu, Seoul, 120-749, Korea Tel:+82-2123-7585 E-mail: injee@yonsei.ac.kr

* 이 논문은 2007년 연세대학교 어린이생활지도연구원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2007-1-0089)의 일부임.

I. 서론

최근 가부장적이고 부계 중심적 친족 관계를 이루어 왔던 한국 가족의 변화로, 결혼한 딸의 친정 가족과의 접촉이 잦아지고, 친정 부모의 경제적·도구적 지원이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조정문(1997)은 친족과의 상호작용이 부계와 모계 혈족을 차별하지 않고 이루어지는 것을 '양계화'라고 정의내렸으며, 과거에 비해 친정과의 유대가 다양한 영역에서 강화되었다는 측면에서 양계화 경향을 부계 일변도의 속성에서 벗어나는 긍정적인 변화로 보았다. 반면 한경혜와 윤성은(2004)은 표면적으로는 양계화 경향이 관찰되나 교류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일반적으로 시가에는 성인 자녀가 도움을 주고, 처가로부터는 도움을 받는 형태가 나타나서 그 근저에는 여전히 부계적 특성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성미애(2004)는 이러한 현상이 친정부모-기혼 딸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미분화'의 한 측면일 수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이재경(1999)은 이념적으로는 핵가족의 가치를 지지하면서도 실제로는 혈연 중심의 직계 가족 범위에서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성인 자녀와 부모의 관계로 보았고 이를 '갈등적 유대'로 표현한 바 있다.

기존의 세대 관계에 관한 연구는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되어 왔다. 하나는 세대 간 통합에 초점을 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세대 간 갈등 내지 문제에 초점을 두는 것이다. 하지만 두 가지 접근 모두 사회적 관계의 특성 중 한쪽 면만 비추어 보는 취약성을 가지고 있다는 지적을 받게 되면서 세대 관계를 보는 새로운 시각과 개념적 접근들이 제시되었다. 그것이 세대 관계에서 나타나는 '양가감정(ambivalence)'에 대한 주목이었다(Connidis & McMullin, 2002; Lüscher & Pillemer, 1998). 양가감정의 개념은 가족을 '높은 통합성과 낮은 갈등, 낮은 통합성과 높은 갈등'의 범위 안에서 그 연속 선상에 놓는 것이 아니라 통합과 갈등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음을 제안하는 것이다(Van Gaalen & Dykstra, 2006). Lüscher와 Pillemer(1998)는 양가감정을 사회적 지위, 역할, 규범에 의해 형성되는 사회적 양가감정(sociological ambivalence)과 개인적 수준에서 경험하는 인지, 정서, 동기의 심리적 양가감정(psychological ambivalence)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부모와 성인 자녀 관계에서 나타나는 조화될 수 없는 모순'을 '세대 간 양가감정(intergenerational ambivalence)'이라고 정의하였다.

세대 간 양가감정에 대한 초기 연구들은 보살핌을 필요로 하는 가족구성원, 특히 노부모 부양에서 성인 자녀가 경험하는 양가감정에 초점을 맞추어왔다(Peters, Hooker, & Zvonkovic, 2006; Pillemer & Lüscher, 2004). 일반적으로 성인 자녀들은 노부모 또는 병든 부모를 자식이 부양해야 한

다는 사회적 규범과 개인의 자율성 사이에서 양가감정을 경험하기 쉽기 때문이다(Lorenz-Meyer, 2004; Lüscher & Pillemer, 1998; Willson, Shuey, & Elder, 2003). 연구자들은 다른 사회적 관계에서보다 가족 관계에서, 형제자매와 같이 수평적인 관계에서보다 부모-자녀와 같이 수직적인 관계에서 양가감정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보고해왔다(Fingerman, Hay, & Birditt, 2004). 더 나아가, 다른 가족구성원 간의 관계에서보다 어머니와 딸의 관계에서 양가감정이 더 많이 나타난다고 주장했다(Connidis & McMullin, 2002; Willson et al., 2003). 일반적으로 딸들은 자녀를 출산한 이후에 자신의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더 많은 친밀감을 보고한다. 그러나 어머니가 자신의 양육방식에 간섭하는 등 독립과 자율성을 침해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딸들은 과도한 결속의 결과로 긴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다(Lüscher & Pillemer, 1998). 즉 성인 딸은 의존감(dependence)과 자율성(autonomy)이라는 상반된 욕구를 가지게 되며, Lüscher와 Pillemer(1998)는 이러한 의존감과 자율성을 현대 사회의 세대 간 관계에서 나타나는 양가감정을 대표하는 양 측면으로 보았다. 출산이라는 여성의 고유 경험 뿐 아니라 여성노인의 증가, 빈곤, 교육기회의 박탈 등의 사회적 구조도 어머니와 딸 사이의 의존성(dependency)을 강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으로 지목된다(Fingerman, 2001; Willson et al., 2003, 재인용).

따라서 근래 한국 사회에서 결혼한 딸의 친정과의 접촉이 잦아지고, '애프터서비스'라 불리는 친정어머니의 경제적·도구적 지원(자녀 양육, 일상적 가사 노동 등)이 일상화되고 있는 현실을 보다 심층적으로 조명해 봐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가운데, 양가감정이라는 개념적 관점이 통합이나 갈등의 시각보다 세대 관계를 이해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세대 간 양가감정에 대한 개념적 정립이 이루어진 것에 비해서는 실증적 연구가 많지 않은 편인데, 여기에는 양가감정을 측정하는 방법론적 한계가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양가감정의 특성상 객관적 관찰이나 측정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계량화하고 통계적으로 처리하는 양적연구 보다는 주관적이고 다양한 실재들을 연구 참여자들의 언어를 통해 이해하고, 내부인의 관점에서 사회현상이면을 '해석'할 수 있는 질적연구가 더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그동안 국내에서 이루어진 세대 관계에 관한 연구 역시 노인 부모를 대상으로 해 오거나 세대 간 교환의 부양 측면 혹은 지원 교환이 자녀의 심리적 복지감(well-being)에 미치는 영향에 치중되어 왔다는 지적이 있다(한민아, 한경혜, 2004). 이에 생애과정 관점(life course perspective)에서 부모기를 거치고 있는 성인 자녀가 경험하는 세대 관계를 탐

색해 봄으로써 성인 자녀가 가지는 세대관계의 다양한 맥락을 고려하고자 한다. 요약하면 결혼한 딸이 출산과 함께 부모기를 거치는 동안 친정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어떤 경험을 하는지, 스스로 경험에 부여하는 의미는 무엇인지 참여자들의 목소리를 통해 이해하고, 양계화 현상 이면에 있는 다양

한 감정을 기술하고 해석해 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성인 딸과 친정어머니 간 세대관계의 본질을 파악하고 이들의 관계가 가지는 사회적 함의를 논의해 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표 1〉 연구 참여자의 특성

대상	본인연령	남편의연령	자녀	자녀의 성별과 연령	취업	직업
W1	28	31	1	여(8개월)	유	사무관련직
W2	35	35	1	여(28개월)	유	관리직
W3	31	33	1	남(1세)	유	금융관련직
W4	28	28	1	(3세), 둘째임신중	유	금융관련직
W5	32	37	2	여(5세), 여(3세)	유	사무관련직
W6	35	37	1	남(19개월)	유	사회복지 관련직
W7	36	40	1	남(6세)	유	사회복지관련직
W8	34	35	1	남(30개월), 둘째임신중	유	사회복지 관련직
W9	37	53	1	여(4세)	유	사회복지 관련직
W10	34	39	1	남(32개월), 둘째임신중	유	교육관련직
W11	34	38	1	남(5세)	유	교육관련직
W12	29	34	1	여(16개월)	유	사무관련직
W13	34	39	1	남(27개월)	유	연구관련직
W14	32	36	1	남(21개월)	유	전문직
W15	31	33	2	남(28개월), 여(7개월)	유	관리직
W16	38	38	2	남(7세) 여(5세)	유	사무관련직
W17	30	30	1	남(36개월)	유	사무관련직
W18	36	40	2	여(26개월), 여(3개월)	유	교육관련직
W19	33	36	1	(41개월)	유	사무관련직
H1	33	36	2	남(4세), 남(2세)	무	교육관련직
H2	32	37	1	남(31개월), 둘째임신중	무	교육관련직
H3	33	33	1	남(7개월)	무	교육관련직
H4	33	30	1	남(3세)	무	없음
H5	29	31	2	남(4세), 남(2세)	무	교육관련직
H6	35	36	2	여(6세), 남(10개월)	무	전문직
H7	28	31	1	남(18개월)	무	교육관련직
H8	38	38	2	남(8세:취학전), 여(4세)	무	사무관련직
H9	32	36	2	남(7세), 여(27개월)	무	사무관련직
H10	30	35	1	남(17개월)	무	금융관련직
H11	31	33	1	남(19개월), 둘째임신중	무	방송관련직
H12	33	39	2	남(35개월), 여(35개월)	무	디자인관련직
H13	29	32	1	남(22개월), 둘째임신중	무	출판관련직
H14	32	34	2	여(43개월), 남(13개월)	무	교육관련직
H15	38	37	2	남(7세), 남(12개월)	무	관리직
H16	35	35	2	남(7세), 여(11개월)	무	사무관련직
H17	35	38	1	남(49개월)	무	사무관련직
H18	35	38	1	남(42개월)	무	금융관련직
H19	33	35	1	남(31개월)	무	금융관련직
H20	35	35	2	여(3세), 여(4개월)	무	사무관련직

* W: 취업주부, H: 전업주부

* 개월 수로 표기하지 않은 자녀연령은 어머니가 구술한 나이로, 만나이가 아닌 경우가 있음.

II. 연구방법 및 절차

1. 질적 접근방식의 정당성

본 연구는 어린 자녀를 가진 기혼 여성이 그들의 어머니와 교류하고 지원받는 방식을 알아보고, 어머니와의 세대관계에서 느끼는 감정과 그들이 부여하는 의미를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세대 관계를 조명하는 다각적 접근 틀로써 '양가감정'의 개념을 도입하여 해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그런데 양가감정은 실존하는 대상물(real object)이기보다 다양한 관찰자에 의해 만들어진 귀속물이라 볼 수 있다. 즉, 개인은 자신의 관계나 경험들을 '양가적'인 것으로 인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Lettke & Klein, 2004). 따라서 '양가감정'은 인간의 주관에 의해 형성되는 해석적 실체로 볼 수 있으며, 이를 양화하거나 통계적 절차만을 통해 밝히는 것은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의 인식, 느낌, 생각이 그들의 서술(narrative)을 통해 인식될 수 있다는 해석주의적(interpretive) 인식론을 바탕으로 하여 질적 연구를 시도하였다. 질적 연구는 미리 설정한 연구가설을 검증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에서 도출되는 중요한 주제들을 범주화하고 개념화하는 과정을 통해 연구 목적에 대한 결론을 귀납적으로 밝히게 되는 바, 본 연구는 연구 참여자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획득된 질적인 자료를 기초로 현실을 '해석'하고 '발견'하고자 하였다.

2. 연구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취학 전 자녀를 둔 기혼 여성으로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는 중산층 여성 39명이다.

첫 자녀가 취학 전인 어머니로 한정된 것은 이 시기가 어린 자녀의 요구가 커서 양육에 대한 어려움이 많고, 주변의 도움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아 연구 목적에 부합한 역동성이 잘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어머니의 취업 상태에 따라 친정어머니와의 교류 및 지원 수혜 정도가 차이를 보일 것이라 예상되어 전업주부와 취업주부의 비율을 균형있게 선정하였다. 그 외의 측면에서 대상의 동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육 수준은 대졸 이상으로 제한하였다. 어머니의 학력을 대졸 이상으로 제한한 이유는 부인의 교육 수준이 양계적 친족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자원적 요소이며, 고학력 여성일수록 여성의 권리 의식이 높아 평등한 가족 관계를 만들어 가려는 경향이 강하다(이재경, 1999)는 주장을 토대로 양계화 현상의 주축이 고학력 여성일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들이 전체 여성을 대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성의 교육 수준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변화의 기초를 보이고 주도하는 부류로서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들은 자신의 경험을 잘

진술하는 능력(narrative competence)을 지녔을 것이라는 가정을 충족시킨다.

연구 참여자들은 '준거적 선택'을 통하여 전술한 조건과 부합하는 사례를 모집하는 '기준(criterion)' 표본추출을 사용하였다. 참여자들은 영유아 교육기관, 회사, 교회, 육아 정보를 교환하는 온라인 동호회 등을 통해 접촉하였고, 그들의 소개로 다른 참여자를 만나기도 하였다. 총원된 40명 중 20명은 전일 취업주부이고, 20명은 전업주부였는데 전업주부 중 한 명이 자신을 전업주부라고 해서 인터뷰를 시도했지만 인터뷰 도중 육아 휴직 중인 것을 알게 되어 취업주부로 분류되었다(이 과정에서 전업주부 한명이 추가로 총원되었다) 자신의 정체성에 대해 모호한 부분이 많아 분석 시에 제외되었다. 따라서 최종 연구 참여자는 취업주부 19명, 전업주부 20명이다.

이들의 연령 범위는 28세에서 38세로 평균연령은 32.9세였다. 1명 또는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으며, 자녀연령 조건은 취학 전으로만 설정하였기 때문에 첫 자녀 연령이 7개월부터 취학 전 연령인 만 5세까지 범위가 넓은 편이다. 전업주부의 경우 현재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지 않지만 한 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취업을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고, 취업주부는 모두 전일제로 일하고 있는 어머니들이다. 본 연구 참여자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표 1>과 같다.

3. 자료 수집 방법

본 연구에서는 '여성들의 모성 경험에 반영된 모성 이데올로기'에 관한 연구(이숙현, 김인지, 이세인, 2009)를 위하여 수집된 원자료 중 일부를 사용하였다. 자료수집 과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연구 조건을 충족시키는 여성들에게 연구 참여 의사를 물어본 뒤 참여에 동의한 잠재적 연구 참여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연구목적과 방법에 관해 간략하게 설명하였다. 참여 의사에 관한 응답을 얻게 되면 연구 참여자가 선택한 장소와 시간에 개별 면접을 실시하였다. 취업주부의 경우 원하는 인터뷰 장소가 회사나 회사 근처였고, 주로 점심 시간을 이용하거나 업무 시간 중 짬을 내서 인터뷰하기를 희망하였다. 따라서 긴 시간을 충분히 할애하기보다는 제한된 시간이 주어져 있어 인터뷰를 하며 조금씩 시간을 연장해갔다. 반면 전업주부의 경우는 낮 시간에 집에서 인터뷰가 대부분 이루어졌는데, 특별히 시간 제약이 있지는 않았지만 어린 자녀가 집에 함께 있는 경우 자녀로 인해 연구 참여자의 주의가 분산되거나 인터뷰가 중단되는 어려움을 겪었다.

개별 면접은 2007년 11월 1일부터 2008년 4월 25일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면접에 소요된 평균 시간은 약 60분이었다. 면접 내용은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하고, 참여자의 사전 허락을 얻어 처음부터 끝까지

녹음하였으며, 인터뷰에서 돌아 온 후 즉시 전사하였다.

면접 질문은 공동 연구자와 수차례 회의를 통해 정하였고, 질문의 주요 내용을 목록화하여 반구조화된 면접을 실시하였다. 면접 내용에는 자녀 양육에 관한 전략, 어머니 역할에 관한 신념 등 전반적인 모성 경험들이 포함되었고, 시택과 친정에서 받는 지원과 교류 형태, 지원을 받을 때 느끼는 감정(긍정적, 부정적 감정) 및 경험, 향후 자신의 자녀에 대한 지원 전망에 초점을 맞춰 진행되었다. 현재의 거주지 선정에 관한 질문과 아버지의 양육 참여에 관한 질문은 초기 인터뷰 과정에서 중요한 정보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추후 질문 목록에 추가시켰다.

4. 자료 분석

자료 분석은 필사본의 주요 진술을 여러 차례 읽고, 숙고하면서 분류, 코딩, 비교를 거듭 반복하는 작업이 기본이 되었다. 이러한 분석 과정은 다양한 분석 측면을 순환적으로 되풀이하는 나선형 자료분석절차(Creswell, 1998, p. 143)에 따른 것이다.

연구 절차의 검증은 부적 사례분석과 동료 검토를 통해 이루어졌다. 부적 사례분석은 잠정적인 이론 모델이 성립된 후 이론 모델에 부합되지 않거나 상치되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을 때까지 이론 모델의 일부를 수정하거나 새로운 논리적 연계를 보완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동료 검토는 양적 연구에서의 평정자간 신뢰도와 같은 의도에서 연구 과정에 대한 점검을 받아 간주관적 설득력과 타당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이다.

Ⅲ. 연구결과

1. 친정어머니의 원조와 헌신

자료수집 과정에서 발견한 흥미로운 사실은 참여자 39명 중 절반 이상인 22명(취업모 11명, 비취업모 11명)이 친정 근처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친정 근처’라 함은 연구 참여자가 ‘가깝다’라고 생각하는 거리로써 심리적인 기준일 수 있기 때문에 물리적 수치로 묻지는 않았다. 그러나 대부분 옆집, 앞집, 같은 아파트 단지 내, 차로 이동하지 않아도 되는 거리, 차로 10분-15분 걸리는 거리 정도 까지를 가깝다고 여기고 있었다. 현재 친정 근처에 살고 있는 연구 참여자들은 결혼할 당시 이미 친정으로부터의 도움을 기대해 친정 가까이로 주거 지역을 결정하였거나, 아이를 낳고나서 이사를 결행하였다. 이 중에는 친정어머니가 일부러 이들 가까이로 이사를 온 경우도 두 사례가 있고, 또 아예 친정과 합가를 한 하나의 사례도 있었다. 취업주부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기

위해서 친정의 지원이 절실한데 이를 받으려면 자주 왕래를 해야 하므로 근접성이 무엇보다 확보되어야 한다. 반면 전업주부의 경우는 ‘애 낳고 힘들어서’, ‘혼자 아이를 키우는게 우울하고 외로워서’ 친정 근처에 있는 것이 여러모로 좋다고 응답하였다. 조정문(1997)은 친정친족과 가까이 살거나 양쪽 모두와 가까이 사는 경우에는 친족관계의 양계화가 두드러졌다고 보고하며, 친족관계의 방향성이 지리적 거리에 의해 영향을 받음은 현대사회에서의 친족관계가 생활의 편리에 따라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하였다. 다음의 사례를 보면 ‘양육에 대한 원조’라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이사를 감행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친정 가까이로 이사 오게 된 것도) 아기 때문에...처음에 엄마가 반대 하셨어요. 처음부터 맡아주실 생각이 많지 않으셨어요. 가능하면은 안 보셨으면 했죠. 네, 근데 상황이 인제 엄마 밖에 맡길 데가 없어서...(중략) 처음에 돌 전까지는 좀 엄마가 너무 힘들어 하셨고 또 실제로 몸이 안 좋으셨어요. 왜냐면 얘기를 갑자기 보시다 보니 까 무리가 왔었어요. 그래서 한 쪽 다리가 이렇게 움직이기 힘들어 하실 정도로 아프셨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엄마하고 만의 트러블이 아니라 친정식구 모두 하고 트러블이 있었죠. 특히 남동생이 좀 반발이 컸죠. 누나가 회사 그만 두거나 어린이집에 보내자. 제가 좀 못 되서 끝가지 고집을 부리고 그랬죠.

(W19, 취업모, 41개월 여아)

아 애를 막상 딱 낳으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웃음). (전에는 좀 멀리 떨어져 계셨어요?) 예. 그래서 애 낳고, 그냥 바로 이사를 왔어요.

(H4, 비취업모, 3세 남아)

연구 참여자 대부분(취업모 18명, 비취업모 13명)은 친정, 특히 친정어머니로부터 육아, 가사, 경제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다. 어린 자녀를 둔 연구 참여자들의 특성상 공통적으로 육아에 관련된 도움을 가장 많이 받고 있었는데, 도움을 받는 정도는 부모의 여건이나 자신의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다. 특히 참여자의 취업 상태에 따라 차이가 두드러졌다. 취업주부의 경우 친정어머니가 아예 양육을 전담해 주거나, 직장 업무 시간과 대리양육 기관의 보육 시간의 간극을 보충하는 역할을 담당해 주는 경향을 보였다. 5년 간 친정어머니가 아이를 키워 올려 보낸 사례, 농사짓는 친정어머니가 농한기가 되면 서울로 와서 2개월 정도씩 있어 준다든 사례, 새벽 6시 30분마다 오셔서 아이들을 등원시켜 주고 다시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을 데려와 자신이 퇴근할 때까지 봐주신다는 사례 등은 취업주부가 직장 생활을 이어 나가는데 친정어머니의 헌신이 크게 뒷받침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의 사례는 19개월 남아를 둔 취업모인데 지방에 사는 친정어머니가 올라 오셔서 주중에는 자신의 집에서 육아를 맡아 주고, 주말에는 지방의 집으로 오고가는 생활을 하고 있다.

그게 일단은 물리적으로, 원래는 어머니가 강원도에 계시는데 뭐 어쩔 수 없어서 저희집으로 서울로 오셨는데.(중략) 우리 아이한테는,

우리 아이한테 익숙한 환경은 저희 집이잖아요. 저의 익숙한 환경 속에 있으면서 양육자가 저로, 저에서 이제 저희 엄마로 바뀌는 거니까 환경만이라도 좀 동일한 환경 안에 아이를 놔줘야지 좀 안정적이겠다 싶어서 그렇게 결정하게 됐어요. (그러면 아버님은?) 또 강원도에 계세요. (강원도에 계시고, 그럼 주말에 어머니 강원도에 갔다 오시는 거예요?) 예.

(W6, 취업모, 19개월 남아)

취업주부는 자녀를 기관에 보내거나 도우미를 고용한다고 해도 어린이집 등원시간 이전에 출근을 해야 한다거나 야근이나 회식 등으로 늦게 퇴근해야 할 경우 친정어머니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었다. 한 연구 참여자는 이러한 역할을 ‘브릿지’ 역할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였다. 도우미에게 맡기더라도 친정어머니가 가끔 들러 ‘들여다보는’ 감독, 관찰, 보조의 역할을 해 주기도 한다.

그니까 제일 큰 게 갑자기 제가 회식이 있거나 늦는 날이 많잖아요. 근데 아주머니가 일곱 시 반 이전에 오시기 때문에 늦게까지 계시게 하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제 엄마가 늘 와서 봐 주시고, 그리고 또 오시면 그냥 오시는 김에 항상 얘기 좋아하는 거 먹을 거 챙겨 오시고 그런거.

(W10, 취업모, 32개월 남아, 임신 중)

아줌마한테만 전적으로 맡기는 거는 좀 안 좋은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아줌마에게 맡기긴 하는데, 친정 엄마가 이제 낮에 자주 오셔서 애들 봐 주시고.

(W5, 취업모, 5세, 3세 여아)

한편, 전업주부의 경우는 대부분 외출, 장보기, 급한 일이 생겼을 때 친정어머니가 단시간 아이를 맡아주는 위탁의 역할과 아이가 아프거나 잠을 안자서 힘들 때 휴식을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아무래도 전업주부는 대가족 속에서 아이를 키울 때와는 달리 어머니 단독으로 가사와 육아를 책임져야 하기에 외출이 자유롭지 못하고, 가사일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따르며, 휴식을 취할 틈이 없어 친정어머니가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는 지원을 제공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뭐 집안일을 엄마가 많이 도와주시고...(친정어머니께서?) 예, 애 때문에 뭘 할 수가 없으니까. 애를, 애가 딱 붙어 있으니까 마트에서 장보거나, 애 병원 데려가거나 이런 것도.

(H6, 비취업모, 6세 여아와 10개월 남아)

취업주부와 달리 전업주부 중에는 친정으로부터 금전적인 도움을 받는 사례가 더 많았는데, 이는 이들 남편이 혼자 벌다 보니 아직 경제적 기반이 안정적이지 못하여서 금전적 도움이 더 필요하기 때문으로 추측된다. 그 밖에도 친정과의 거리에 관계없이 쌀, 김치, 반찬 등을 택배로 받거나 부식을 친정에 가서 가져오거나 친정어머니가 와서 해 주시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다음은 먼 거리에 있는 친정으로부터 여러 지원을 받고 있는 사례이다.

먼데, 비행기를 주로 타고 가죠. 그리고 신랑이 저희 집 가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자기가 설 수 있으니까.(웃음) 그리고 한 번 가면 저보

고도 한 일주일 폭 쉬라는 건데 제가 가서 있으면 신랑은 그동안 자기 못했던 친구들 만나고 약속, 운동 이런 걸 다 할 수 있어서 갔다 오면 아주 좋아하죠. 그래도 또 가면 저희 어머니랑 아버지는 첫 손주예요. 제가 맡아서. 그래서 좀 남다르신거 같아요. 되게 잘 해주시고 하나 까... 항상 반찬같은 건 보내주시죠. 바리바리 택배로 보내 주시죠.

(H11, 비취업모, 19개월 남아, 둘째 임신 중)

한편,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육아와 가사, 경제적인 지원 뿐 아니라 생활의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친정어머니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참여자들도 있었다. 잠만 따로 잘 뿐 거의 모든 생활에서 친정과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은 체 의존적인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보였다.

조금씩 다 받고 있어요. 뭐 가사 육아 경제 다 조금씩 받고 있습니다...뭘 쌀이 떨어졌다든지, 뭐 여러 가지...엄마(친정어머니) 시장을 봤을 때 내꺼까지 봐 온다던지, 이런 것들이고 육아는 뭐 제가 힘들 때, 애기가 너무 밤에 잠을 깨가지고 너무 힘든 날 좀 봐 주십사 하면 좀 봐 주시고, 친구들 약속 있을 때 봐 주시고, 경제적인 거는 뭐 여러 가지로 그냥 다 인 것 같아요.

(H3, 비취업모, 7개월 남아)

모든 게 다...(웃음). 잠만 따로 자는 것 같아요. 그니까 밥도 거기서 먹는데, 음식도 다 거기서 가져오고.

(W3, 취업모, 1세 남아)

크든 작든 친정어머니와의 교류는 주로 딸이 도움을 받는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 결혼한 딸에게 친정은 각종 양식과 노동력을 제공받고, 휴식을 취하기도 하며 육아라는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의를 가다듬는 기지(base camp)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Litwak과 Kulis(1987)에 의하면 직접적인 대면을 통한 지원(자녀양육, 가사일 돕기)은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감소되나 경제적 도움, 선물, 조언, 감정적 지원 등과 같이 신체적 접촉을 필요로 하지 않는 지원은 지리적 거리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한다. 본 연구의 참여자들 역시 친정과 가까운 거리에 살면서 대면적 상호 작용을 통한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으며, 멀리 떨어져 살고 있더라도 전화를 활용해 유대를 이어 가거나, 택배를 통해 주식과 부식물을 받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친정의 지원을 받고 있었다.

2. 친정어머니의 지원에 대한 양가감정의 표현

이상에서 살펴본 대로 어린 자녀를 둔 연구 참여자들은 친정어머니로부터 다양한 지원을 받고 있었고, 특히 육아와 관련된 지원이 가장 많았다. 그러면 이들은 이러한 지원을 받으며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는지 질문하였다. 이들의 응답에서 양가적 감정에 대한 진술을 목록화해 분석해 본 결과 양가감정을 느끼는 사례는 취업주부 15명과 전업주부 8명이었고, 양가감정을 갖지 않은 사례는 취업주부 4명과 전업주부 12명이었다. 취업주부가 친정으로부터 육아 원조를 더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양가감정을 느끼는 사례도 더 많은 것으로 보인다.

(1) 고마움과 미안함의 혼재: 사회적 양가감정

연구 참여자의 대부분은 친정어머니로부터 도움을 받을 때 느끼는 감정에 대해 물었을 때 ‘고맙고 미안하다’거나 ‘감사하고 죄송하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고마움과 미안함’은 하나의 상황에 대해 상반되는 감정이나 견해를 동시에 갖는 양가감정에 해당된다(Peters, Hooker, & Zvonkovic, 2006). 이러한 감정은 갈등(conflict)과는 구별되어야 할 다른 차원의 감정이다.

너무 감사하죠. 어...정말 마음 아프죠(웃음). 너무 감사하고 미안하고.
(H2, 비취업모, 31개월 남아, 둘째 임신 중)

엄마가 건강이 좋으신 편이 아니라서 챙겨 주시면 좀 미안한데 그래도 좋죠.
(W11, 취업모, 5세 남아)

엄마한테 미안하죠, 미안하긴 한데 뭐 우선은 제가 좀 편하기도 하고 시댁보단 아무래도 친정이 편하니까, 편하기도 하고, 또 아버지 돌아가신지 얼마 안되셨거든요. 그니까 어머니가 애를 보면서 또 위안을 좀 받으시니까 그냥 좋게 생각하자(웃음). 해서 엄마한테도 좋고 나한테도 좋은거야, 막 이러면서 하긴 하는데...좀 미안하긴 하죠. 그니까 딸은 소용이 없단니까요.
(W8, 취업모, 3세 남아, 둘째 임신 중)

그런데 이러한 고마움과 미안함이 혼재되어 나타나는 것은 친정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비롯된 것이다. 도움을 드려야 할 연로한 부모에게서 오히려 도움을 받고 있다는 자책감과 미안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친정의 도움을 받게 되는 이유 중 하나는 혈족이 아닌 타인이 제공하는 원조나 공공 서비스에 대한 불신 때문이다. 특히 가사 일보다는 양육에 있어서 그러한 경향이 더 심하게 나타났다.

미안하죠, 엄마가 이제 연세가 있으시니까 무릎이 아프신거예요. 아이를 안거나 할 때, 근데 이제 그래도 제가 힘들어 하니까, 와서 도와주시는데, 왔다가 이제 가시면 밤에 무릎 아프시고 팔도 아프시고 그러죠. 그래서 오시면 또 마음이 불편해요. 한편으로는. 그렇게 마음이 편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렇다고 아줌마를 쓰자니, 아줌마를 써도 마음이 불편한건 마찬가지예요. (왜요?)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H6, 비취업모, 6세 여아, 10개월 남아)

이들이 미안함과 고마움이 혼재된 양가감정을 느끼게 되는 또 다른 이유는 연구 참여자들이 여전히 남아 있는 부계 중심의 전통에 대해 비판적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외손자녀나 시집간 딸은 가문을 잇고, 제사를 지내는 등 보답이나 보상을 주는 혈족이 아니기 때문에 친정어머니가 원조를 해야 할 도덕적 의무나 책임이 없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따라서 친정어머니의 맺가없는 봉사는 시댁에서 주는 도움보다 더 고마운 것으로 여겨지고, 한편으로는 그래서 미안한 감정이 드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꼭 친손자, 외손자를 가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사회통념상 의무를 좀 따지자면, 출가외인의 자식인 손주를 봐 주는 것보다는(중략). . . 그런 것 때문에 당연한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조금은 있기 때문에(시댁에 대해서는) 감사한 마음도 그에 상응해서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H12, 비취업모, 35개월 남아, 35개월 여아)

시댁에서 해 주면 당연한 생각이 들고 친정에서 받으면 고맙죠. 왜냐하면 시댁은 어차피 자기네 자손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그러면 하면서도 도움은 안주니까.
(H15, 비취업모, 7세 남아, 12개월 남아)

연구 참여자들은 도구적 지원을 받기 위해 모계 친족과의 활발한 상호 작용을 가지고는 있지만, 위와 같은 양가감정은 결국 부계제의 전통에 속해 있는 자신들의 현실을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어머니를 양육의 일차 책임자로 인식하는 사회적 기대와 남편의 적극적 참여를 기대할 수 없는 현실적 여건으로 인해 참여자들은 육아의 짐을 혼자 감당하며 고군분투하게 되면서 그나마 도움을 기대할 수 있는 친정어머니에게 미안해 하면서도 도움을 받게 되는 것이다.

신랑이, 결혼 후에 되게 바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친정에 많이 가 있고 그러니까 다행이다, 이렇게.
(W5, 취업모, 5세, 3세 여아)

이처럼 연구 참여자들은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그들의 지위와 역할에서 발생하는 양가감정을 가지고 있으며, 전통적 부계 친족관계의 전형과 다른 양계화된 세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으면서도 엄연히 존재하는 사회 규범과의 모순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감정은 사회적 양가감정에 속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2) 의존과 자립욕구의 상존: 심리적 양가감정

연구 참여자들이 시댁이 아닌 친정으로부터 원조를 받는 이유 중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것은 ‘편하다’는 것이었다. 이는 편리성이 아니라 친정에서 원조를 받는 것이 심정적으로 더 편안하게 느껴진다는 것이다. 그것은 ‘엄마와 딸’이라는 모녀관계의 정서적 가까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잘 시어머니와 대비되곤 했다.

아무래도 친정 엄마는 편하니까 그런 것도 있고, 시어머니는 집안 일 많이 해 주시긴 해도 제가 머느리니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머니와 계실 때가 좀 더 신경이 쓰이긴 하죠.
(W5, 취업모, 5세 3세 여아)

마음의 부담, 그만큼 받았으면 내가 또 이렇게 해 드려야 되는거 아닌가요. 시부모님 필요 하실 때, 그런 게 일단 받을 때 편안하게 받아들이기는 조금 힘들 것 같아요. (중략) 그냥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하잖아요. 엄마고 편하고 이러니까.
(H11, 비취업, 2세 남아, 둘째 임신 중)

이들이 친정어머니에게서 받는 도움을 편하게 생각하는

데는 보답의 부담이 없다는 점도 크게 작용했다. 즉, 친정어머니가 주는 원조는 보상이나 환원을 조건으로 한 것이 아니라고 인식하는 것이다. 모녀간의 정서적 유대로 인하여 어머니가 딸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이해하고 동정할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친정어머니와는 의견 차이가 있더라도 해결하기가 수월하고, 부탁을 하는 입장에서 요구나 의사표현이 좀 더 자유롭다고 여겼다. 친정어머니가 가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심리적인 위안이 되기도 하고, 자녀를 출산하고 나서 동질적 경험의 공유로 인해 여성으로서의 친밀감을 어머니에게 느끼기도 한다. 또한 육아기 동안 사회활동이나 대인관계로부터 고립되기 쉬운 전업주부에게 친정어머니는 부족한 사회관계망을 보충해 주기도 한다.

집에 있으면 답답하다 이렇다가 보다는 어쩔 때 갑자기 심심할 때가 있어서 친정이 가까우니까 차타고 금방 가니까 가서 나는 빈집에서 데 데리고 놀다가 엄마 왔냐고 반기기도 하고(웃음). 혼자 자주 가고, 가까우니까 그만큼 내가 자주 가게 되고.

(H10, 비취업, 17개월 남아)

김치 주시고 이럴 때야 뭐 좋죠. 좋고 그런데 제가 정작 살아가면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하지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게 저희 친정엄마거든요. 그럴 때는 전화를 걸어서 이럴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엄마한테 딸로서가 아닌 같은 엄마 대 엄마로서 물어 볼 때 그럴 때는 아 내가 엄마한테 많은 도움을 받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죠.

(H11, 비취업, 2세 남아, 둘째 임신 중)

그러나 이들은 이렇듯 친밀하고 편안한 친정어머니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과 함께 친정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는 것이 수동적, 의존적으로 변화하는 자신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성인으로서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져야 바람직 한 것임을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현실을 인정하고 있었다. 친정어머니의 지나친 관여나 간섭 등으로 독립된 생활을 방해 받는다는 느낌을 갖기도 하였다. 연구 참여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부모로부터 도움은 받으면서도 성인으로서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유지하고픈 양가적 욕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런 게 조금 있어요. 독립을 못한다는 거. 그래가지구 근데 또 향후 이사를, 그래도 계획하고 있거든요. 이제 나는 원래 6시에 밥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엄마가 전화해서 '애 7시에 맛있는 거 해 놀테니까 먹으러 와' 그러면 그 때까지 또 기다려야 되고 이런 게, 장점도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리고 자꾸 미루게 된다는 거. 가서 얻어먹으면 되지 뭐 이런 마음이 생겨서 게을러지는 거 같아요.

(H4, 비취업모, 3세 남아)

저희는 또 엄마가 워낙 좀 이렇게 알아서 알아서 하시는 스타일이셔서, 자식들 일에 되게 관여를 많이 하세요. 저희 동생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뭐 하나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얘기 뭐 한다 그러면 알아서 척척척척 하시니까, 너무 좀 의존적... 예전에는 하다못해 저희 장보는 것까지 거의 봐 주셨거든요. 이제 평일에 장 봐서 봐 주시면, 배달도 시켜 주시고, 저희 동생네 얘기 봐주시면서 엄마도 힘드시니까 제가 이제 주말에 장 보고 이제 하나씩 하나씩 제가 하려고 하는데... 가끔 생각해도 제가 계속 친정에 살았는데 떨어져서, 만약에 이사가

면 다른 지역에 산다 그러면 혼자 잘 못 할 것 같은 생각이 들긴 하더라도 그렇고.

(W5, 취업모, 5세 여아와 3세 여아)

또 친정어머니와의 잦은 교류에서 맞닥뜨리는 부정적 측면으로 양육방식이나 육아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갈등이 언급되었다. 친정어머니의 편애, 훈육 방식 등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친정어머니의 조언이 인터넷이나 서적으로부터 얻은 정보나 지식과 다를 때, 세대 차이를 느끼거나 충돌이 생기기도 한다. 특히 자녀가 영아기를 벗어나 교육이 필요한 시기가 되면 아쉬움이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

저는 엄마 때문에 모유 수유, 아이 태어나서 모유 수유를 고집해서 백일때까지 모유 수유만 했어요. 근데 엄마가 옆에 와서 가끔 보면 애는 아주 잘 먹는 엔데 제가 모유 양이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잘 먹는 애인데 분유를 섞어 주라고 저한테 막 뭐라 그러서서 제가 중간에 혼합수유를 했거든요.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의 정보를 책이나 인터넷을 보고 거의 아이를 키웠는데 제가 알기로는 그게 아닌데 엄마는 옛날에 다 그렇게 키웠다고 그러시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엄마랑 많이 싸웠죠.

(H17, 비취업모, 남아 5세)

저희 엄마 같은 경우는 지금 세대처럼 이렇게 정보가 많이 오픈되었을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교육적인 면에서는 그냥 좀, 어 흘러가듯이 했던 거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좀 더, 더 이렇게 얘기한테 체계적으로 시키려고 노력하고, 뭐 이것저것 정보수집도 많이 하고, 그런 부분에서 조금 이제 세대의 차이가 있었던 거.

(W1, 취업모, 8개월 여아)

연구 참여자들은 아이를 키우며 같은 여성이자 어머니로서 친정어머니를 이해하게 되고, 친정어머니로부터 받는 도움이 얼마나 고마운 것인지를 체득하며 성숙해 가는 경험을 하면서 친정어머니의 대가(對價)없는 원조가 주는 이점을 누리고 있었다. 그러나 결혼을 하고 성인이 되어서까지 부모의 원조를 받고 있는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며 반성하기도 한다. 또한 어머니와의 밀착된 관계에서 오는 자잘한 감정 싸움이나 불만, 세대차가 존재하는 가운데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욕구를 보여주고 있다. 결국 연구 참여자들은 개인 내에서 서로 상반되는 정서나 가치를 함께 경험하면서 심리적 양가감정을 느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은 이와 같은 자신의 상황과 감정을 양가적인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모순된 상황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경향을 보였다. 또 미안하면서도 도움을 받고 있는 자신을 '이기적'이라고 표현하거나 자녀가 자람에 따라 친정어머니의 의존에서 조금씩 벗어나려는 시도를 하기도 하였다.

(3) 양가감정의 부재

양가감정을 보이지 않은 연구 참여자는 전업주부 12명과 취업주부 4명이었는데, 이들은 다시 두 집단으로 나누어졌다. 한 집단(전업주부 5명, 취업주부 3명)은 친정의 도움을

받는 것을 긍정적, 혹은 부정적으로만 인식하는 단일한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집단(전업주부 7명, 취업주부 1명)은 친정으로부터 받는 도움이 없이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있어서 양가감정을 느끼지 않는 부류였다.

먼저 단일한 감정을 가진 집단 중 친정어머니의 도움을 받는 것에 대해 그저 '미안'하다고 한 사례는 친정어머니가 희생적으로 전폭적인 지원을 해 주는 경우였다.

늘 미안한 생각뿐이죠...(중략) 한심해요, 제가, 너무 의존을...요즘 들어서도 아니지만 얼마 전에 집에서 혼자 생각을 해봤어요. 어느 날 문득 내가 신앙이 없다면, 그니까 만약에 뭐 누가 없어진다 가정했을 때 신앙이 없어지는 것보다 엄마 아빠가 없어지는게 더 무서운 거 같아요. 그니까 결혼을 했는데도 엄마 아빠로부터 독립을 못 한거죠. 엄마 아빠가 없다면 내가 세상을 어떻게 살까 막막한 감정까지 느껴지는 거예요.

(W3, 취업모, 1세 남아)

한편, 친정어머니의 원조에 대해 고맙다거나, 좋고 편하다거나, 당연하다고 긍정적으로만 평가한 경우는 가벼운 도움을 받고 있거나 친정이 멀어서 가끔 도움을 받는 사례가 해당되었다. 이들은 '가볍고 편한 마음'으로 원조를 받는다고 하였다. 반면 친정 근처에 살면서 많은 원조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가감정을 가지지 않는 사례들을 발견했는데, 이들은 대부분 친정의 원조를 받음으로 해서 얻는 긍정적인 측면을 더 크게 인지하고 있었다. 주로 친정의 원조가 없이 생활하기 어려움 취업주부였고, 어차피 도움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원조를 받아야 하는 상황을 정당화하고, 양가감정을 회피하여 마음의 불편함을 덜고자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친정의 원조를 당연한 것, 상호 호혜적인 것이라고 인지적으로 재정의하여 양가감정을 약화시키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요즘엔 사실 당연하게 생각해요(웃음).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생활을 할 수 없고 그냥 그런 건 당연하게 생각해야 내 마음도 편하고, 회사를 그만둘 거 아니라면 어쩔 수 없죠.

(W13, 취업모, 4세 남아)

(독립성이) 많이 떨어지죠. 심하게 떨어지는데 근데 저는 그렇게 사는 게 좋은 거 같아요. 왜냐면 얘기한테도 식구가 많은 게 참 좋은 거 같더라고요.

(W14, 취업모, 3세 남아)

양가감정을 느끼지 않는 두 번째 집단은 친정으로부터 도구적 지원을 받지 않는 참여자 8명이었고, 이 중 7명은 전업주부이다. 이들은 '친정어머니가 일을 하고 계셔서, 친정과 거리가 멀어서, 동생네 얘기를 봐 주셔야 해서' 등의 이유로 도움을 받지 않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은 도움을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들은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 섭섭하다거나 도움을 받는 사람들에게 대해 부러움 등을 표현하기도 했지만, 도움을

받을 때 생기는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더 강한 편이고, 친정 어머니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움을 받지 않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일상적으로 친정의 도움을 받고 있는 주변의 세태를 비판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하였다.

어쩔 땐 섭섭하지만 근데 나중에 생각해 보면 이렇게 하니까 이 관계가 오랫동안 좋게 유지되는구나. (중략) 좀 부러울 때도 있어요. 근데 친구들 얘기 들어 보면 좋은 것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속상한 점도 많대요. 친정엄마는 와서 일 다 해주는데 시댁이랑 관계는 사실 자기가 가서 일을 다 해야 되고 이런 관계잖아요. 그래서 친정엄마가 그렇게 일을 하면 마음이 아프고 내심으로는 그러면서도 안 좋아하는 것도 있더라고요.

(H8, 비취업모, 8세 남아, 4세 여아)

어쩌다 급하면 좀 많이 섭섭했어요. 그랬는데 이게 좋은 거 같아요.(어떤 면에서요?) 친정엄마가 무슨 죄 지은 것도 아니고, 저희 주변에도 그런 엄마들 많거든요. 친정엄마가 뭐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집 안 일을 다 해주고 간다. 옆에 얘기 엄마가, 이제 집안을 어지럽혀가지고 '아 힘들어 이거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애가 '할머니 불러, 할머니가 청소해 줄거니까' 이게, 이 정도로. 근데 좀 아닌 거 같아요.

(H5, 비취업모, 4세 남아, 2세 남아)

이렇듯 친정의 도움을 받지 않거나 미안함을 느끼지 않을 정도의 가벼운 원조를 받는 상황은 도움을 받는 딸에게 양가감정을 유발시키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친정의 도움에 많은 부분을 의지하고 있고, 어쩔 수 없이 원조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서는 너무 미안한 나머지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꿈으로써 양가감정을 회피하려는 참여자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 Van Gaalen과 Dykstra(2006)에 의하면 양가감정은 선택이 자유롭지 못한 구조적 상황일 때 가장 일어나기 쉽고 하였지만, 이렇게 선택이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개인은 양가감정을 회피하거나 해소하기 위해 '인지 재정의'의 대처 전략을 취하기도 한다는 것이 드러났다.

3. 양가감정과 다음 세대로의 지원의 전수

그러면 이렇게 친정어머니로부터 육아 지원을 받으며 양가감정을 경험한 연구 참여자들이 다음 세대를 위해 동일한 지원을 해 줄 것인지, 한다면 어떤 형태로 나타날 것인지, 지원을 받지 않아 양가감정을 느끼지 않은 어머니들은 어떤 태도를 보일 것인지 알아봄으로써 이들의 현재 경험이 다음 세대에 미치게 될 영향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다음 세대에 대한 지원 태도에 따라 '보은적 증여', '한계적 증여', '합리적 증여'를 추구하는 세 집단으로 나눌 수 있었다.

첫 번째 집단은 친정어머니의 헌신적인 도움을 받았으므로 나도 다음 세대에게 도움을 주겠다는 '보은적 증여'의 의지를 표명하였다. 취업주부 중 9명과 전업주부 중 3명이 이러한 견해를 나타냈는데, 이들 대부분은 가사나 경제적인 부분보다 육아에 있어 친정어머니의 헌신적인 도움을 받은 경

우였다. ‘보은적 증여’의 태도가 자신의 친정어머니에 대한 양가감정에서 전환이 된 것이라고 단정지을 수 없지만, 취업주부 대부분이 전업주부보다 원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도움을 받고 있으며 이들 대부분이 양가감정을 느끼고 있기에 친정어머니에 대한 고맙고 미안한 마음을 다음 세대에 대한 원조를 통해 되갚고자 하려는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이 부류에 속한 참여자들은 ‘내가 받았기 때문에’라는 표현을 자주 사용했고, 이것은 ‘내리사랑’이라고 표현되는 한국적 정서와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실상 친정어머니의 댓가를 바라지 않는 원조가 부계 제도의 사회 규범상 보상에 드러야 할 부담이 없는 것이기도 했기에 자신이 받은 방식으로 자녀에게 되돌려 주는 ‘보은적 증여’를 통해 양가감정의 해소를 기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저는 저희 친정엄마가 저한테 해 주는 거 만큼은 해 주어야 되고 할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오래 건강하게 살아야 할 거 같다는 생각을 하죠. (웃음)

(W16, 취업모, 7세 남아, 5세 여아)

저 역시도 저희 남편하고 얘기해요. 우리가 우리 아들을 직접 못 키웠지만 애가 나중에 결혼해서 애를 낳게 되면, 그 땐 또 우리가 키워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개 어렸을 때 뭐 못 봤던 성장과정을 우리 손주 키우면서 그 성장과정을 또 볼 수 있지 않을까

(W7, 취업모, 6세 남아)

그러나 이들이 현재 자신의 친정어머니 세대가 전업주부였기에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현재의 취업주부들이 장차 할머니 세대가 되었을 때 자신들이 지금 친정어머니로부터 받았던 대로 자녀 세대의 양육을 도와줄 수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다. 자신들이 여전히 취업을 지속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Beck-Gernsheim(2005)은 여성의 이력이 변화한 것처럼 현재의 할머니들 역시 예전 처럼 전적으로 손주를 돌보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제한된 시간만 돌보기를 원하는 등의 변화를 보고하는 연구결과를 예로 들며 다음 세대를 돕기 위해 언제라도 투입될 준비가 된 할머니들은 점점 더 부족해질 것이라고 전망하였다.

두 번째 집단은 다음 세대에 대한 원조를 결혼 후까지도 길게 전망하고 있으면서도 육아 지원은 제외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한계적 증여’의 입장을 취했다. 이러한 의견을 보인 참여자는 취업주부 6명과 전업주부 12명이었지만 이들의 취업 상태에 따라 육아 지원의 한계에는 차이가 있다. 이 부류에 속한 취업주부들은 전적으로 양육을 책임지기는 어렵겠지만 약간의 도움을 줄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 즉, 주양육자가 되기보다는 보조적인 역할을 맡거나 경제적 지원을 통해 양육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간접적 지원을 원하였다. 친정어머니의 헌신적인 지원을 받았지만 것처럼 할 자신이 없거나 친정어머니가 현재 하시는 보조적 역할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기는 취업주부들이 이러한 태도를 보였다. 이들은 양육을 전담해 주지는 못하더라도 다음 세대가 가질 양육 부담에 어느 정도는 책임을 나누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전업주부들은 자신들이 ‘스스로’ 육아를 해결한 것처럼 자녀들 역시 육아는 그들 스스로 책임져야 한다는 인식이 강했다. 자신들이 양육에 전념했던 만큼 또 다시 손자녀 양육의 짐을 떠맡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이들은 자신이 양육을 스스로 책임졌기 때문에 부모에게 큰 부담을 주지 않았다고 여기는 듯 했으며, 자녀들에게도 이와 같은 태도를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부모니까 저도 주고 싶어요. 줄 수 있는 한. 너무 무리해서는 못 줘요. (손자의 양육을 맡아달라고 하면?) 그건 아니죠(웃음) 양육은. 어 내가 그랬듯이 너희도 임마가 해라 그런거구. 음 양육은 못 해주고 저도 별로 시부모님께 막 친정엄마께 완전하게 아이를 맡기지 못할 거 같아요 너무너무 죄송하고 연로하신 분들한테 아이 키우는게, 이게 젊은 나도 이렇게 힘이 드는데 그거는 도리가 아닌 거 같아요.

(H1, 비취업모, 4세 남아, 2세 남아)

세 번째 집단은 원조가 어디까지 이루어져야 할지에 대한 합의점은 차이가 있지만 현재의 방식을 개선하거나 바람직한 방법을 모색하는 ‘합리적 증여’를 추구하는 부류이다. 취업주부 4명과 전업주부 5명이 여기에 해당되었으며, 현재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자신이 원하는 원조의 방식을 다음 세대를 돕는 방식 속에 투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부류에 속한 참여자들은 친정의 원조를 받되 지나치게 의존적이지 않은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은 ‘할 수 있는 능력보다는 조금 작게’, ‘시기에 따라 적극적·소극적으로 형태를 달리해 가며’, ‘그들의 양육 방식을 존중해 주면서’ 도움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의 취업주부 역시 자신의 능력과 건강이 허락된다면 모든 지원을 해 주고자 하는 참여자이지만, 자녀가 원하는 한계를 넘지 않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나는 아들 자식보다 딸자식을 더 봐 주고 싶을 것 같아서, 특히나 딸이 일을 하고 그런다라고 하면(중략). 제 욕심 때문에 예를 들어 애들이 원치 않는데 오버해서 해 주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나중에 내가 나이 들어서 방법이 어떻게 됐든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는 능력이 되면 좋겠어요.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 신체적인 것도 그렇고.

(W15, 취업모, 28개월 남아, 7개월 여아)

특히 ‘합리적 증여’를 추구하는 참여자들은 자녀의 독립이나 자립을 강조하는 경우가 많고, 다음 세대와의 관계에 있어 지나친 밀착이나 상호 의존을 경계해야 한다는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런 아이로는 키우면 안되죠. 그럴 생각도 없고 그럴 능력도 없을 거 같고. 애 대학 등록금까지는 내 주고 나머지는 저희 노후 챙겨야죠.

(H18, 비취업모, 42개월 남아)

우리 엄마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정말 열-십이세요. 열-십이시다 보니까 연연하는 것도 많죠. 뭐 하나하나. 지금도 매일매일 엄마랑 통화를 해요.(중략) 물론 사랑이고 좋은 거지만...그렇게 너무 그러면 엄마 본인 스스로도 실망할 때는 상당히 실망도 크게 돌아올거고, 영향도 많고. 이제는 세상이 바뀌어서 서로들 조금, 마음을 차게는 아니지만 털어낼 부분들은 털어내서 너무 연연하지 않는 엄마가 되겠다는 생각은 해요. 잘 될지는 모르겠지만...

(H20, 비취업모, 3세 여아, 4개월 여아)

살펴 본 바와 같이 연구 참여자들 대부분이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의 한계를 비교적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그만큼 도움을 받은 세대이고, 이러한 축복은 친정어머니 세대가 원조 가능한 여건을 갖추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도움을 받으며 가졌던 양가감정은 자신의 취업 상태나 원조 수혜의 정도에 따라 '보은적 중여'나 '한계적 중여'로 다르게 전환됨을 볼 수 있었고, 이것은 자신이 '받은 만큼 준다'거나 자신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주지 않을 것이다'라는 표현을 통해 파악할 수 있었다. 다음 세대에 대한 '합리적 중여'를 모색해 보고자 한 참여자들은 밀착된 세대 관계가 보여 줄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을 들며 지나친 의존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합리적 모색은 양가감정을 포함하여 현재 원조를 받는 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IV. 논의점

양계화 현상에 주목했던 초기 연구들(조정문, 1997; 한남제, 1997)은 양계화를 한국 가족의 근대적인 변화의 한 측면으로 바라보았다. 이를 부계일변도의 속성에서 벗어나는 긍정적 변화라고 보는 시각도 있었지만(이동원, 김현주, 최선희, 함인희, 김선영, 2002; 조정문, 1997), 양계적 경향이 도구적 지원을 전제로 한 불균형적인 관계이며(한경혜, 윤성은, 2004), 자신의 핵가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대가족적 연대를 피하는 기능적이고 보수적인 대응이라고 주장하는(이재경, 1999) 비판적 시각이 제기되기도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현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도모하고자 어린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그들의 친정어머니와의 교류 경험과 그 경험에 부여하는 의미를 탐구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대부분의 연구 참여자들이 친정의 도움을 받고 있었고, 친정어머니에게 양가감정을 느꼈다. 이들의 양가감정은 친정으로부터 지나친 도움을 받고 있거나 그 도움에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을 때 발생되었으며, 친정의 도움 없이 독립적으로 생활하는 참여자들은 양가감정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친정의 지원 없이 일과 가정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운 취업모가 전업주부보다 양가감정을 더 많이 느끼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친정에 대한 의존이 양가감정을 유발시킨

다는 점을 뒷받침해 준다. 참여자들이 느끼는 양가감정은 심리적 양가감정과 사회적 양가감정으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먼저 심리적 양가감정은 개인 내(intrapersonal)에서 상치되는 정서, 가치, 동기를 동시에 경험하게 될 때 발생하는 것으로, 연구 참여자들은 친정 어머니에 대한 의존감과 자립욕구를 동시에 느낌으로써 이러한 심리적 양가감정을 경험하고 있었다. 성미애(2004)는 한국 가족의 양계화 현상이 친정 부모-기혼 딸 간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미분화의 한 측면일 수 있다고 지적하였지만, 어린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본 연구의 참여자들이 가지는 친정 어머니와의 긴밀한 상호작용은 단순히 친정 어머니와의 정서적 유대 때문에 일어나는 것만은 아니라고 여겨진다. 자립에 대한 욕구를 상쇄할만큼 육아가 외롭고 고되기 때문이다. 즉, 여성의 권력(power)이 양계화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이 젠더 이데올로기에 의해 양육을 홀로 책임져야만 하는 입장에 놓여 있는 한계적 지위에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젊은 여성의 자녀 양육이 윗세대의 여성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상 역시 젠더 이데올로기의 파장인 것이다. 친정 근처로 주거지가 결정되는 것은 여성의 파워가 더 강하기 때문이 아니라 양육과 관련된 책임이 여성에게 있기 때문이라는 역설적인 증거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친정 부모와의 거주 근접성은 양계화를 나타내는 지표이긴 하지만, 모계 친족에 대한 배려라기보다는 양육과 가사를 담당해야 하는 여성-수혜와 원조를 담당하는 양자 모두-을 위한 편의성 추구의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편의성 추구가 단순히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이라면 양가감정이 발생되지 않았을 것이며, 인지적 재정의를 통해 양가감정을 해소하려는 시도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이를 반증하는 바로 연구 참여자의 남편들은 모계혈족을 통해 원조를 받는 것에 대해 양가감정을 갖기보다 자신의 부담을 덜거나 회피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이를 환영하는 추세를 보였다. 아버지들의 양육 참여가 많이 늘었다고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여전히 아버지의 역할은 아이와 놀아주는 것에 한정되어 있을 뿐 육아에 따른 모든 일상을 함께 책임지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또한 아버지들이 잘 '도와준다'고 해도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더불어 어머니 자신도 남편에게 '분담과 책임'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도움'을 원함으로써 육아가 자신의 영역임을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여성 '혼자서' 양육을 담당하게 하는 사회 구조적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 여성이 양육의 부담을 친정어머니와 나누기 보다는 남편과 분담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 경영이나 일-가정 양립지원 정책과 같은 제도적, 정책적 여건을 마련해 주는 동시에 아버지 역할에 관한 교육이 지속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

다. 뒷세대 아버지에게는 '생계 부양자' 역할과 '아버지' 역할이 동일했지만, 요즘의 남성들은 현 시대에 알맞은 아버지의 역할모델을 새로이 창조하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지지해 주면서, 양육의 참여를 통해 자신이 발달적으로 성숙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줄 필요가 있다. Hawkins, Christiansen, Sargent와 Hill(1993)이 제안한 것처럼 아버지의 양육 참여가 여성과 남성이 가사를 똑같이 나누자는 측면에서 촉구되기 보다는 완전한 인간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남녀가 서로 돕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주변인, 보조자의 역할에서 벗어나 능동적인 아버지로서 부부 중심의 협력 체제를 이루어야 친정어머니에 대한 의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심리적 양가감정은 개인 내에서 상치되는 감정이지만 그 원인은 결국 여성의 사회적 위치, 여성에게 부여된 규범적 역할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적 양가감정이란 사회적으로 구조화된 특정 지위나 역할에 따라오는 규범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태도나 행동을 요구할 때 발생된다. 다수의 연구 참여자들이 공통적으로 표현한 '고맙고도 미안한', '좋지만 마음 아픈' 감정은 한국의 가족기능이 빠르게 변화하는데 반해 강한 유교적 가치가 잔존해 있는 현실을 드러내 보여준다. 연로한 부모님께 도움을 드리는 커녕 도움을 받고 있다는 사실과 결혼 후 '출가외인'인 자신과 부계가문을 잇는 혈족인 자손을 위해 친정어머니가 헌신하는 것이 전통적 가치관에서 볼 때 보상이나 대가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의무가 아닌 일을 하는 친정어머니의 수고가 그래서 더 고맙고, 미안한 것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친정어머니의 원조가 가능한 원인으로 연구 참여자들의 친정어머니가 대부분 전업주부라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연구 참여자들의 친정어머니 대부분은 사회분위기가 자연스럽게 전업주부의 삶을 살아왔고, 현재 유희노동력이기에 '비상 예비군'으로 투입될 수 있는 것이다(Beck-Gernsheim, 2005, p. 121). 실제로 친정어머니로부터 도움을 받지 않고 있는 사례 중에는 친정어머니가 현재 취업 중인 경우가 많았다. 그런데 이러한 친정어머니와의 잦은 교류로 인해 맺어진 대가족적 연대가 지속적으로 유지될지는 의문이다. 성미애(2004)에 따르면 밀착된 상호작용을 통해 도구적 지원을 받던 연구 참여자들이 자녀가 점차 자라고, 본인이 바쁜 중년기에 오면서 친정과의 상호작용은 피동적 수동적으로 변해가고, 친족관계의 범위를 생식가족으로 한정하려는 경향이 나타난다고 한다. 성인 자녀의 육아문제를 돕기 위한 비상 예비군이었던 친정어머니가 점차 부족한 자원이 될 것이라는 Beck-Gernsheim(2005)의 지적처럼 다음 세대를 위해 손자녀의 양육 지원을 해 주겠다고 의사 표명을 하는 취업주부라도 자신의 경력이 유지된다면 양육 지원을

해 줄 여건이 안 될 가능성이 높고, 또 양육을 전담했던 전업주부와 일부의 취업주부들은 양육 지원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 참여자들의 자녀 세대는 친정어머니에게 도구적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므로 양계화 현상이 근대 가족의 특성으로 자리매김할 것인지를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대칭적 양계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성인 자녀 세대의 부부 중심의 독립성을 전제로 한 친밀한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하며, 양가감정을 가지게 되었던 구조적 원인을 인식하고 극복하려는 실천적 의미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경혜와 윤성은(2004)이 주장한 것처럼 성인 자녀로부터의 지원의 가장 큰 수혜자는 남편의 부모가 되고, 자녀에게 도움을 주는 지원 제공자는 아내의 부모인 현실은 친족 관계의 평등성이 구현되지 않은 비대칭적인 양계화이다. 따라서 양가감정의 발생 기제를 정확히 드러내고 자각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혈족이 아닌 타인이 제공하는 원조나 공공 서비스에 대한 불신이 팽배해 있어 미안한 마음에도 불구하고 친정의 도움을 받고 있는 현실에 관해 재고가 필요하다. 연구 참여자들은 매스컴에서 보도된 사건 사고의 영향으로 타인 양육에 대한 불신을 드러냈고, 기관에 의한 양육 지원역시 불충분함을 토로했다. 보육 시설이 전업주부의 입장에서 보면 취업모 중심으로 운영되어 전업주부가 잠깐씩 아이를 맡길 만한 곳이 없고, 취업모에게는 출퇴근 시간과 보육 시간이 맞지 않아 등하원 시간과 위탁시간 외에 아이를 맡아 줄 사람이 필요하다. 따라서 공적 지원의 불충분함을 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친정어머니가 동원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에 공공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통해 타인 양육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시키고, 엄마가 키우는 것이 최선이라는 모성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일-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부부 공동체 시스템을 지원하면서 더불어 사회가 온 힘을 다해 육아의 짐을 나누어야 함을 촉구하는 바이다. 그렇게 되면 출산과 육아가 여성에게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을 경감시켜 저출산을 극복하는 데에도 일조를 할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는 세대 간 양가감정의 발생과 관련된 개인의 경험에 대한 심층 분석을 통해 세대 관계에 대한 이해와 양계화 현상의 본질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양가감정의 발생 기제를 사회 구조적, 심리적 측면에서 논의를 보았다. 특히 본 연구는 세대 관계의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대두된 '양가감정'의 개념을 실증적 연구에 적용할 수 있도록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다. 후속 연구를 통해 질적 연구방법이 가지는 통계적 대표성과 일반화 가능성의 한계를 보완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연구참여자의 조건을 보살핌의 요구가 크다고 전제되는 취학 전 자녀를 둔 어머니로 제한하였지만 자녀가 영아일 경우와 아동일 경우 어

머니가 상이한 감정을 가질 수도 있으므로 좀 더 이 시기를 구분해 연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추후에는 성인 자녀 뿐 아니라 친정어머니의 경험에 대한 탐색도 함께 이루어져서 세대 간 양가감정에 관한 사회 문화적 맥락을 다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 참고문헌

성미애(2004). 질적 연구를 통한 한국 가족의 양계화 현상에 대한 진단적 접근.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4(3), 59-72.

이동원, 김현주, 최선희, 함인희, 김선영(2002). **한국가족의 현주소: 현장 연구 리포트**. 서울: 학지사.

이숙현, 김인지, 이세인(2009). 여성들의 모성 경험에 반영된 모성 이데올로기. 연세대학교 어린이생활지도연구원 연구 보고서.

이재경(1999). 여성의 경험을 통해 본 한국 가족의 근대적 변형. **한국여성학**, 15(2), 55-86.

조정문(1997). 한국사회 친족관계의 양계화 경향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학**, 13(1), 87-114.

한경혜, 윤성은(2004). 한국가족 친족관계의 양계화 경향: 세대관계를 중심으로. **한국인문학**, 27(2), 177-203.

한남제(1997). **한국가족제도의 변화**. 서울: 일지사

한민아, 한경혜(2004). 세대간 지원교환유형과 성인자녀의 심리적 복지감. **한국가족관계학회지**, 9(1), 135-152.

Beck-Gernsheim(2005). *Was kommt nach der Familie? 가족 이후에 무엇이 오는가*. 박은주(역). 서울: 새물결. (1998년 원저발간)

Connidis, I. A., & McMullin, J. A.(2002). Sociological ambivalence and family ties: A critical perspectiv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4, 558-567.

Creswell, J. W.(1998). *Qualitative inquiry and research design: Choosing among five traditions*. Thousand Oaks: Sage.

Fingerman, K. L., Hay, E. L., & Birditt, K. S.(2004). The best of ties, the worst of ties: Close, problematic, and ambivalent social relationship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6, 792-808.

Hawkins, A. J., Christiansen, S. L., Sargent, K. P., & Hill, E. J.(1993). Rethinking father's involvement in child care: A developmental perspective. *Journal of Family Issues*, 14(4), 531-549.

Lettke, F., & Klein, D. M.(2004). Methodological issues in assessing ambivalences in intergenerational relations. In Pillemer, K., & Lüscher, K.(Eds.) *Intergenerational ambivalences: New perspectives on parent-child relations in later life*(pp. 85-113). Belgium: Elsevier/JAI Press.

Litwak, E., & Kulis, S.(1987). Technology, proximity and measure of kin support.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49, 649-661.

Lorenz-Meyer, D.(2004). The ambivalences of parental care among young German adults. In Pillemer, K., & Lüscher, K.(Eds.) *Intergenerational ambivalences: New perspectives on parent-child relations in later life*(pp. 225-252). Belgium: Elsevier/JAI Press.

Lüscher, K., & Pillemer, K.(1998). Intergenerational ambivalence: A new approach to the study of parent-child relations in later life.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0, 413-425.

Peters, C. L., Hooker, K., & Zvonkovic, A. M.(2006). Older parents' perceptions of ambivalence in relationships with their children. *Family Relations*, 55, 539-551.

Pillemer, K., & Lüscher, K.(2004). Introduction: Ambivalence in parent-child relations in later life. In Pillemer, K., & Lüscher, K.(Eds.) *Intergenerational ambivalences: New perspectives on parent-child relations in later life*(pp. 1-19). Belgium: Elsevier/JAI Press.

Willson, A. E., Shuey, K. M., & Elder, G. H.(2003). Ambivalence in the relationship of adult children to aging parent and in-law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5, 1055-1072.

Van Gaalen, R. I., & Dykstra, P. A.(2006). Solidarity and conflict between adult children and parents: A latent class analysis.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68, 947-960.

접 수 일 : 2009년 11월 30일

심사시작일 : 2009년 12월 7일

게재확정일 : 2010년 3월 16일